“학생 게시물 제거는 ‘표현의 자유’ 침해”

인권위 ‘사학비리 대자보’ 철거 광주 명진고에 결정문 공지 권고

학생들이 교내에 게시한 현수막과 대자보를 학교 측이 제거한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광주 명진고등학교가 부당해임 교사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학생들이 부착한 현수막과 대자보를 제거한 것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9일 시민모임 관계자가 진정한 ‘광주 명진고 현수막과 대자보 부착·철거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헌법과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교육 등의 기준에 비추어보면, ‘학생 선동의 우려’와 같은 추상적인 이유를 근거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차단하는 규정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명진고 일부 학생들은 지난해 ‘명진고 사학비리, 바로잡기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A교사 부당 해임 징계에 대해 학교법인 도연학원측의 사과와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철회 요구, 스쿨미투로 직위해제 됐던 교사들의 징계사항 공개”를 요구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에도 도연학원에 대한 특별감사 진행 촉구와 함께 스쿨미투로 직위해제됐던 교사들에 대해 투명한 재심의를 실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명진고등학교장에게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른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명진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 상 학내 게시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것과 ‘학생 게시판 사용에 관한 협약’ 및 이 사건 결정문을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을 권고했다.

시민모임은 “이처럼 게시물을 통한 학생들의 비판행위들은 건전한 시민의식을 길러내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자신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면서 “실제로 고교생들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모범적인 학생들의 행동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

무지개 끝에 겨울이 있다 겨울비가 잠시 멈춘 틈을 타 단풍이 곱게 든 공원에 무지개가 내려 앉았다. 9일 오후 광주시 서구 화정동 한 근린공원에 무지개가 떠 행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청소년 지도자들 소통·공감 시간 갖는다

청소년미래재단, 내일 김영록 지사 등 300여명 참가

전남의 청소년 지도자 3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전남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논의한다.

재단법인 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하 재단)은 9일 “오는 11일 오후 ‘2021년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자 소통·공감대회’가 청소년미래재단 대강당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꿈꾸는 청소년, 함께하는 지도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전남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게 된다. 김영록 전남지사,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주인철 전남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 조연용 한국청소년상담지원협회 대표이사, 김정운 전남도청소년지도사협회장 등과 도내 청소년지도자 3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 육성과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지도자를 포함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소통·공감대회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개최하지 못했으며, 위드 코로나와 함께 2년 만에 열린다. 청소년지도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청소년 단체 및 협력기관들이 서로 역할을 공유하는 것이 그 취지다. 또 청소년지도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주제강연과 특별행사도 진행한다.

양미란 재단 원장은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을 지도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이 현장에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고, 지원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위드 코로나 1단계에 맞춰 방역관리자를 지정, 사전에 명부를 작성하고 대회 당일 2차 접종 후 2주 경과 여부 등을 현장 확인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학부모·자녀 함께하는 교육콘서트

광주시 서구, 13일 EBS 김광호 PD 초청 온·오프라인 강연

광주시 서구가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구청 2층 들불홀에서 2021년 제3회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교육콘서트를 실시간 온-오프라인 강연으로 개최한다.

이번 교육콘서트는 EBS 정책기획센터장 김광호 PD를 초청하여 ‘당신이 모르는 부모 역할, 자녀의 미래를 좌우한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강사 김광호 PD는 EBS ‘60분 부모’ 제작과 다큐프라임 ‘마더쇼크’ ‘가족쇼크’등 다수의 부모관련 프로그램 제작과 부모교육 강의로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AI로 대변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 자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진정한 부모의 역할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교육콘서트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http://seogu.gwangju.kr/)를 참조하거나 교육청소년과(062-360-7923)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청소년 사이버 범죄 예방 콘테스트

광주시 북구, 27일 메타버스 공간서…30일까지 선플 캠페인도

광주시 북구가 오는 27일 ‘청소년 사이버 범죄 예방 콘테스트’를 메타버스 공간에서 개최한다.

이번 콘테스트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은 메타버스 플랫폼인 네이버 제페토에서 사이버 범죄 관련 O·X 퀴즈를 푸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오는 30일까지 북구청소년수련관 누리집에서 청소년 사이버 범죄 예방을 주제로 선플 캠페인도 펼친다.

북구에 거주하는 청소년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또는 북구청소년수련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북구는 올해 2월 동부교육지원청, 북구경찰서, 광주보호관찰소 등 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청소년 사이버 범죄 예방 법체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관내 33개 학교 7990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범죄 피해 대처방법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전남교육청, 원문정보 공개율 ‘도단위 1위’

올 1~10월 76.8% 달해

전남교육청이 2021년 공문서 원문정보 공개율 도 단위 교육청 1위를 기록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한 투명한 책임행정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포털 올해 10월 말 기준 시도교육청별 공문서 원문정보 공개율 분석 결과,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생산한 공문서 274만6618건 중 210만 8778건(76.8%)을 공개해 전국 시·도 평균 61.4%보다 높은 공개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2위에, 도 단위 교육청 중에서는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원문정보 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 없이 기관이 자발적으로 공문서 원문을 공개하는 것으로, 투명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전남도교육청은 전남교육 행정 공개 원칙을 정하고 국민 수요를 분석, 사전정보 공개 항목을 250개에서 280개로 확대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도진 전남도교육청 총무과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전남 교육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원문정보 공개율이 최상위 권으로 상승했다”며 “국민 수요에 맞춰 공개 범위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충장축제 대비 줍깅 챌린지

광주 동구 21일까지

광주시 동구가 제18회 ‘충장축제’를 앞두고 오는 21일까지 5·18민주광장·금남로 등 축제 무대 일대의 쓰레기를 줍는 줍깅 챌린지(참여 잇기)를 진행한다.

9일 동구에 따르면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통해 14일간 주민 대상으로 워크온 동구 주민 커뮤니티에 가입 후, 5만 보를 걷고 쓰레기를 줍는 사진으로 인증샷을 올리는 줍깅 챌린지를 진행한다.

‘줍깅’은 ‘쓰레기 줍기’와 ‘조깅’의 합성어로 일정 장소를 걷거나 달리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활동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작은 실천으로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줍깅이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